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5월 8일(금)
..(음력 4월 16일)..

Пятница
8 мая 2020г.

№ 18(11688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9일은 승리의 날이다. 올해는 대조국 전쟁 대승 75주년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친애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사할린 주민 여러분!

대승전 75주년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날은 특별합니다. 이 날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의 머리 위에 평화로운 하늘의 가치를 상기시키고, 송고하게 희생하신 영웅들을 추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용맹스럽게 대조국전쟁의 위업을 짊어지시고 승리자로서 이 전쟁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총체적 단결 덕에 우리는 강한 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토를 방어하고 유럽의 국민들에게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극동지역 국경에서 전투 활동이 이어져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전장이 된 가운데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가 해방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전승절을 제 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된 날인 9월 3일을 법적으로 확정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이날은 5월9일과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명절입니다.

1945년 승전 결과 현재의 국경

으로서 사할린주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친애하는 참전용사 여러분의 공적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전쟁의 시련을 극복 하였고 평화의 시기에는 사할린에 편안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하셨으며 사할린주에 중요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강인함과 삶에 대한 애정은 참된 모범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모든 영웅들이 존엄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사할린주 정부는 이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따뜻함과 배려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명절을 맞아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 모두에게 강건함과 평화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대전승절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의료진, 출발공항에서 탑승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시작

사할린행 모든 승객들은 현재 러시아의 4개 출발공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 테스트를 받기 시작했다. 사할린주가 출발공항에서 이런 검사를 도입한 첫 러시아 지역이다. 사할린주정부는 아에로플로트, S7, 압로라(오로라), 야쿠치아 항공사 등의 지원을 받아 모스크바, 노위시비르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의 공항에서 익스프레스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곧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 공항에서도 신속 검진을 하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이 새로운 조치는 위험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승객과 승무원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일(월) 저녁에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할린행 여객기 탑승객에 대한 사전 통제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 사례가 없는 이 특별한 조치의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다. 오늘날 해도 의사들은 의심환자 12명을 확인했다. 그들 중 일부는 공항 의료서비스를 통해 이송되었고, 나머지는 특수 보호복을 입고 집(사할린)으로 보내졌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승객·승무원의 감염을 막고, 가장 중요한 점은 감염병이 사할린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전했다.

(3면에 계속)

단신

승리의 날, 유즈노사할린스크 상공에 전투기 축하 비행

유즈노사할린스크는 승리의 날에 군용 전투기가 하늘을 날게 될 러시아 47개 도시중 하나가 된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Су-35С 전투기 2대가 주중양도시 상공을 비행할 예정이다. 68군단 드미트리 글루셴코브 사령관에 따르면 군공주의 일본으로부터 남부 사할린 및 쿠릴열도 해방자 영예기념체 성화에 헌화식이 끝난 직후 군 항공기가 시내 동쪽 지역을 비행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협으로 이번 대승절 행사는 러시아 전역에서 취소된 가운데 집에서 관람할 수 있는 전투기 퍼레이드로 대체되었다.

비행은 오전 11시쯤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밤10시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전통적인 불꽃놀이 대신 포병들의 경례 발포가 있을 것이다.

사할린, 코로나바이러스와 맞서는 의료진들에게 7700만 루블리를 추가 지급

사할린주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퇴치를 위해 연방 예산에서 7700만 루블리를 배정받았다.

사할린주에 대한 재정 지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자금은 5월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4월 30일에 입금되었다.

해당 자금은 최전방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추가 자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예산 배분 순서에 따라 추가지원은 우선 감염병 병원 직원들, 그리고 구급차 의료진들이 받게 된다.

지급액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주, 전국 애국 행사 "러시아 국기. 5월 9일"에 동참

5월9일 <고르니 위스투흐> 스포츠관광단지 중간 지점에 가로10m, 세로 20m 크기의 승리 깃발이 게양될 것이다. 이 행사는 대승전 75주년 기념 행사중 하나다. <러시아 국기. 5월 9일>행사는 사할린주에서 처음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전 러시아운동 '윤아르미아(소년대)' 사할린지부와 지역 스포츠단체들의 대표들, 주청소년청과 청소년자원센터 직원등이 참가한다. 주최 측은 행사 진행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필요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취할 것이다.

"러시아 국기. 5월 9일"행사에 사할린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5월 9일 주민들은 자택의 창이나 발코니에 러시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새고려신문

2020년 하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22루블리 90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대승 75주년 맞아

위대한 조국전쟁 고려인 참전자 기리며

5월 9일은 러시아 전승기념일이다. 1941년 6월 22일부터 1945년 5월 8일까지 지속된 소련과 나치의 전쟁 - 대조국전쟁은 20세기의 가장 참혹하고 피비린내나는 전쟁으로 여겨진다.

공식적으로 이 전쟁에서 민간인을 포함해 소련군 2천660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 숫자가 거의 2배 더 많을 수 있다고 한다.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이후 고려인들에게 소련군대 복무가 금지되었었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일부는 전장에 나가 싸울 의지를 굽히지 않고 기회를 찾아냈다. 2011년에 모스크바에서 출간된 <1941-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 전선의 소련 고려인들>이란 책(저자: 신 드미트리, 박 보리스, 최 발렌틴)에는 대조국전쟁 고려인 참전자 372명에 대한 정보가(사료, 회고록, 신문기사 등)가 반영되었다. 2013년 4월 사할린에서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사할린 주민들에게 책을 저자인 신 드미트리 <아리랑.루>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소개했다. 책에 참전자 372명이 소개되었지만 실제로 고려인 참전자는 더 많았다.

본지는 일부 참전 용사들이

소개되었지만 대조국 전쟁 75주년을 맞아 고려인 참전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아래에 책에 실린 대표적인 사례(서울신문에 게재된 기사 <한국사가 잊어버린 한인 영웅들> 인용. 저자 - 바실리 V 레베데프 고려대 사학과 석사)를 싣는다. 저자는 '고려인'을 '한인'으로 묘사.

(본사 편집부)

유럽 해방에 공로를 세운 한인도 있다. 예컨대 제233 붉은 깃발 사단에 속한 **김 니콜라이** 중좌는 전쟁



첫날부터 제3우크라이나 전선의 일원으로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 공세작전에 참전해 1급 조국전쟁 훈장을 수여받았다. 살벌한 방어전을 치른 후 김 중좌가 지휘한 연대는 1945년 3월 20일 공격을 개시해 적군을 격파하고, 시몬 토르냐라는 마을을 점령했고, 카포시 수로를 건너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3월 23일에 김 중좌의 정확하고 능숙한 지도로 적을 패주시켜 약 500명의 독일군 장병을 제거했다.

제116사단 제246반전차대대 부대장 **지 (池 또는 智) 니콜라이** 대위가 1942년 4월 22일 오전 5시에 예정된 아군 보병부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용감성을 발휘해 최전방 정찰부대가 위치한 곳에 44mm 대포를 설치했다. 새벽이 되자 측면사격으로 적군 중기관총 5대와 토목화점 2개를 파괴하였고 그것으로 '용맹' 훈장을 수여받았다.



제4돌격군 소속 **함 니콜라이**는 1943년 8월 6일 독일군 방어선을 공격할 때 돌파구에서 분산된 부대들을 통합해 지휘관으로서 전투를 계속했다. 198.5 고지 전투에서 함 대위는 전차들을 위해 교량과 도로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고지에 돌격해 독일군 장병 3명을



직접 제거했다. 함 대위는 1944년 1월 6일 벨라루스를 해방하면서 영웅적으로 전사했다.

'소련의 영웅'이라는 최상위의 칭호이자 가장 높은 훈격을 수여받은 한인 **민 알렉산드르**도 있다. 만 26세의 청년인 그는 1941년에 입대해 가장 어려운 전투를 감당한 전선군 중 하나인 브란스크 전선군에 파견됐으며 대위 계급을 수여받고 용감하게 싸우다가 1944년 7월 9일 전투에서 전사했다. 그 훈장수여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볼린 주 전투에서 민 동무는 그 부대의 전장으로 가서 직접 대대를 지휘하면서 적군 5개의 반격을 퇴치하고 전진할 수 있었다. 스타리에 코샤르 마을 전투에서 민 동무와 그 대대는 용감하게 우회작전을 실시해 마을을 해방했다. 육박전이 된 이 전투에서 민 동무는 직접 그 대대를 지휘했다. 그 후 파로 두브 마을 전투 때에도 민 동무는 전장에 직접 섰으며 부대를

지휘하다가 영웅적으로 전사했다. 용감함과 영웅의 기질을 발휘한 민 동무는 '소비에트 연방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책 자료에 따르면 고려인들은 대조국전쟁의 거의 모든 큰 전투에 참여했다. 모스크바 전투에 적어도 2명, 레닌그라드 방어전에 21명,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16명, 쿠르스크 전투에는 8명, 베를린 공세작전에 11명, 그리고 1945년 6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첫 승리 퍼레이드에는 고려인 2명이 참가했다.

(사진: <1941-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 전선의 소련 고려인들> 책에서)

정정합니다

본지 2020년 5월 1일호 사할린주한인협회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결의문을 보낸 자료에서 결의문 제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한국 정부에 보낸 결의문>을 <일본 정부에 보낸 결의문>으로, <일본 정부에 보낸 결의문>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결의문>으로 정정합니다.

본사 편집부

이모저모

아버지의 날에 초대받은 사할린 및 쿠릴 주민

<다자녀의 러시아>국가 기획의 일환으로 <아빠의 날> 축제를 개최한다.

이는 전국에 진정한 영웅은 다자녀를 둔 아버지 들임을 되도록 알리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축제의 우승자는 고가의 상급과 상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축제는 4월부터 6월까지 <러시아 연방 다자녀 가정>사이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획의 일환으로 <수퍼 아빠> 경연이 조성되는 가운데 경연을 위해 '인스타그램', '브콘택',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에는 '# 러시아 연방 수퍼 아빠'에 사진과 동영상 게시하고 게시물에 가족의 가장이 하는 착한 일, 예를 들면 자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 주거나, 자녀들의 공부를 돕는 등의 활동을 올려야 한다.

이후 축제 사이트에서 특별 경연 방식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사할린 주민들은 <아빠에 대한 이야기> 경연에 참가할 수 있다. 주최 측 사이트가 제안하는 바는 자신의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씬에 있어서 아빠의 가장 중요한 성품, 특이할 만한 행동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다.

이후 <러시아 연방 다자녀 가정> 사이트에서 신청서 제출 후 작품을 제출해야 하며 희망자에 따라 '#2020 아빠에 대한 이야기' 소셜 네트워크에 작품을 게시한다.

축제의 온라인 행사와 주요 부문들은 <운동하는 아빠>, <음악하는 아빠>, <요리하는 아빠>, <똑똑한 아빠>, <멋진 패션의 아빠>, <신기록을 보유한 아빠>, <자녀들의 보호구역> 등이다.

<아빠의 날> 축제의 일환으로 스타들의 활동교실과 노래와 춤을 방송하는 상호작용의 온라인 행사들이 진행된다. 여기에 스포츠, 예술, 문화계의 제작자들과 작가들과의 만남도 계획되어 있다.

2020년 6월 20일 온라인상에서 경연의 결승과 우승자 시상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아빠에 대한 가장 재미있는 작문을 발췌하여 낭독하고, <수퍼 아빠> 동영상과 사진 부문에서 각 부문별 우승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на «Папин день»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роекта «Многодетная Россия»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 под названием «Папин день». Он нацелен на то,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людей по всей стране узнали настоящих героев – многодетных отцов.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ают ценные призы и подарки.

Фестиваль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на портале многдетные-семьи.рф с апреля по июнь. В его рамках состоится конкурс «Супер папа», для которого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платформы Instagram, Вконтакте, Facebook, TikTok и YouTube. Необходимо опубликовать в этих соцсетях фотографии или видео с хэштегом #суперпапаРФ, на которых глава семьи делает доброе дело, например, что-то мастерит для детишек или помогает им делать уроки. Затем нужно заполнить специальную конкурсную форму на сайте фестиваля.

Также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Сказка о папе».

– Напишите свою «Сказку о папе»: расскажите о его самых важных качествах и значимых поступках, – предлагают на сайте фестиваля.

После этого нужно отправить сочинение через заявку на сайте многдетные-семьи.рф и по желанию разместить его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под хэштегом #сказкаопапе2020.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и онлайн площадки фестиваля: «Спортивный папа», «Музыкальный папа», «Кулинарный папа», «Умный папа», «Модный папа», «Зона рекордов пап», «Детская Зона».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Папин день»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интерактивные онлайн-площадки с трансляциями танцев, песен, звездных мастер-классов. Также планируются встречи с писателями и деятелями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искусства.

Финал конкурса и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пройдет в онлайн-режиме 20 июня 2020 год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очитают отрывки из самых интересных сочинений о папах и объявят финалистов по каждой из категорий фото и видео-батла «Супер папа».

미국 대통령상을 수상한 한국계 고등학생

한국계 미국 고등학생 티제이 김이 경비행기로 의약품품을 배달한 봉사 활동으로 미국 대통령 상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는 5월 1일 백악관에서 열린 '노력, 영웅, 희망'이라는 특별 시상식에서 그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 상은 총 5명이 수여했다.

메릴랜드주 고등학교 학생인 티제이 김은 이전에 비행 수업을 받은 바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학교 수업이 중단되자, 이 학생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교관과 함께 버지니아주 시골병원에 의약품품을 배달했다.

시상식에는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다른 시민들을 도운 다른 미국 시민들도 참석했다.

Американский старшеклассник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получил награду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Американский старшеклассник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иджей Ким был удостоен награды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за добровольную доставку медицинских изделий на легкомоторном самолёте. Награда была вручена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1 мая на специальной церемонии под названием «Старания, героизм и надежда», проходившей в Белом доме. Всего награды удостоились пять человек.

Тиджей Ким, учащийся старшей школы штата Мэриленд, ранее проходил обучение на пилота. Когда занятия в школе были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юноша решил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вместе со своим инструктором он доставил медицинские изделия в сельскую больницу штата Вирджиния.

На церемон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и другие жители США, оказавшие помощь согражданам в борьбе с COVID-19.

쿠릴 보호구역의 편리한 디지털 지도 등장

쿠쉬나르 섬에 위치한 쿠릴 보호구역에 대한 편리한 디지털 지도가 생겼다. 이 지도는 휴대전화에서 '캐리맵' 무료 앱을 다운받으면 된다. 디지털 지도는 여행자에게 장소를 탐색하고, 실 만한 곳에 대한 정보를 찾고, 벽지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러시아 지리학회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했다.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노인정 어르신들에게 어버이날 축하

5월 8일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을 기념한다. 요즘에는 이 명절을 사할린한인들도 기념한다. 노인정을 운영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중환)는 해마다 노인정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어버이날 행사(축하공연, 식사 대접 등)를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로 모든 대중 행사들이 취소된 가운데 시한인회 운영위가 소집되어 할머니들의 자택을 방문하여 축하하기로 했다.

지난 6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의 회원 8명이 1세 어르신 31분을 찾아 쌀 5킬로그램씩과 금일봉을 전하면서 건강을 기원했다. 많은 할머니들은 뜻밖의 선물에 반가워 하였다.

선물 전달식은 7일에도 이어졌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는 4월 17일 최고령의 동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시기에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의 장애인들과 빈곤자 가족 6가구를 찾아 식품세트(곡물, 면, 통조림 등)를

전했다. 3월 30일에는 시사회복지지원센터의 부탁으로 시한인회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힘들어하는 장애인 윤가 마리아나에게 봉사차원에서 식품세트를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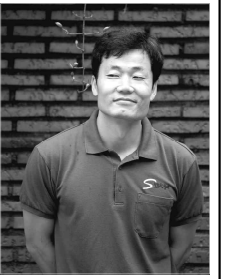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본사 기자)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순간의 선택

나는 농구화를 좋아한다. 같은 브랜드의 농구화 십여 켤레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덕분에 그 회사 농구화에 대해서는 제법 아는 척을 할 수 있었다.



전업 작가가 되기 전, 마지막 직장이었던 신발회사에 들어간 것도 그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직원들 집에 보내기 싫어하는 것 같던 전 회사를 떠나려고 구인정보를 검색하다 눈이 반짝 뜨였다. 업무내용, 근무지, 급여 등이 모두 나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완벽한 회사가 보였다. 정성들여 이력서를 만들어 보냈더니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면접 분위기는 좋았다. 사장님이 마지막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농구화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우리 회사 신발은 어떤가요?"

순간 내 얼굴은 급속냉동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지원서를 낸 곳은 농구화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미국 브랜드의 한국 판매 회사였다. 하지만 지금은 농구화 시장에서 밀려나 패션 아이템으로 존재하는 화석 같은 존재였다. 농구화를 고를 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신어보지도 않은 브랜드여서 할 말이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 회사에서 꼭 일하고 싶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딱 한 번만 거짓말을 할까?

순간적으로 갈팡질팡 고민을 한 끝에 결국 입을 열었다.

한 번도 신어보지 않았지만 이력은 알고 있다고. 지금까지 1위 브랜드의 농구화만 신었노라고, 경쟁할 제품을 잘 아는 것이 결국 우리 제품을 잘 만드는 비결이 되지 않겠냐고.

면접실을 나와서도 후회가 되었다.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 차려준 밥상을 건어찬 느낌이 었다. 결과를 궁금해 하는 아내에게 할 말이 없었다.

다음 날 면접을 통과했으니 일주일 뒤 출근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서 한참 멍했던 기억이 난다. 신발회사에 다니고 나서야 내가 신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전문가들에게 단번에 들통 날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사장님이 내가 좋아했던 농구화 회사에서 오래 일하다가 우리 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 스카우트 되었다는 건 몇 달 뒤 인사 담당자에게 들은 비밀이었다.

광주에서 김남중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перевод (неофициальный) проекта спец.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инятого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9 апреля 2020 г. Перевод размещен на сайт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роект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татья 1. Цель

Целью настоящего Закона является компенсация ущерба, понесенного сахалинск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принудительно завезенными на Сахалин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и пр., а также оказания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благодаря усилиям государства и дипломатии.

Статья 2. Определения в тексте настоящего Закона

1. «Сахалинск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называют лица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которые родились на Сахалине, либо переселились на Сахалин до 15.августа 1945 года.
2. «Сопровождающими членами семьи» называют супругу(а)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и одного его прямого потомка с супругой(ом).

Статья 3. Обязан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1. Государство обязано разработать и ввести в действие меры,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2. Государство обязано приложить вс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усилия для компенсации ущерба, понесенного сахалинск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эксгумации и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я останков.

3. Государство обязано осуществить проект поминовения, необходимый для реабилитации чест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татья 4. Связь с другими законами

Следовать положениям настоящего Закона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случаев, когда в других законах имеются специальные положения относительно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Статья 5. Поддержка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1.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ожет оказать следующую поддержку в пересел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1. Оплата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ов, необходимых при возвращении на Родину, а также расходов на устройство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2. Оплата расходов на содержание пансионатов/домов престарелых.
3.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арендованных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и пр.

4. Иная поддержка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и устройство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огласно указу Президента.

2.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ожет оказать поддержку, указанную в п.1,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м членам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татья 6. Подача 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1.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их семей, намеревающиеся переселиться на ПМЖ в РК и желающие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огласно Ст.5, обязаны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им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2. В случае наличия заявления согласно п.1,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обязан вынести решение о возможност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поддержки и уведомить заявителя о результате рассмотрения его заявления.

3. Положения относительно норм определения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учения поддержки согласно п.1 и п.2, способа рассмотрения, процедуры и пр. определяют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Статья 7. Поручение обязанностей

Часть обязанностей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по настоящему Закону может поручаться руководителя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органов, либо юридическим лицам/обществен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согласно указу Президент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оложения

Статья 1. Дата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Настоящий закон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с 01.01.2021 года.

Статья 2. Обеспечительные меры относительно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ереехавших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Считать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которые на момент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настоящего Закона получили поддержку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получившими поддержку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огласно Ст.5.

* Информируем, что п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у мнению Юридиче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в часть содержания проекта Закона, опубликованного на нашем сайте 30.04.2020 г., были внесены поправки и дополнение. (Дата внесения последних поправок: 06.05.2020г.)

사할린 의료진, 출발공항에서 탑승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시작

(1면의 계속)

승객들의 비행 전 점검을 위해 사할린주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자체 의료팀을 가동했다. 시험관, 혈액용 원심분리기 및 개인보호장비 등 필요한 모든 장비가 제공되었다.

모스크바 셰레메티예워 공항에서는 국영 항공사 아에로플로트의 지원을 받아 탑승 등록 수속 후 검사 구역에서 승객 테스트를 진행한다. 곧 이 곳에서 사할린행을 위한 두 번째 검진소(선별진료소)가 가동될 것인데, 이 지점에서 환승객들을 관리할 것이다.

"사할린 주 당국과 함께 우리는 노워시비르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크네위치 공항 출국장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과건된 의사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당장의 계획은 환승 구역에 검진소를 여는 것이다."라고S7항공사 유즈노사할린스크지점의 알렉세이 부르콥스키 지점장이 전했다.

오로라는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공항에서 승객 검진소를 조직하도록 돕고 있다. 항공사는 이어서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에도 의료기지를 개설할 계획이다.

출국 및 입국 공항의 승객에 대한 검진소들은 좋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가 감염 확진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할린 주에서는 5월 6일 현재 감염병 대유행 초기부터 32건의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미 20명이 완치되고 12명은 치료를 받는 중이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9 мая проведут акцию «Поздравление ветерану»

В день празднования 75 годовщины Победы участник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осетят руководители региона и город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 общественники.

Сегод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живает 34 участник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Каждого из них поздравят лично, вручат подарки. У домов фронтовик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сполнят знаменитую песню Давида Тухманова «День Победы».

– Мы готовим к этому дню ветеранов. Волонтеры помогут фронтовикам одеться и выйти на балкон, чтобы увидеть персональный творческий номер. Лежачих постараемся поближе к окнам поместить, – сообщ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ветера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инаида Гльговер.

Кроме того, в трех дворах запланированы мини-парады. В каждом из них под марш пройдет по звонку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68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Напомним, традиционные масшта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Дню Победы, решением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еренесены на более поздний срок в связи со сложной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оединится к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акции «Флаги России. 9 мая»

На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е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9 мая развернут Знамя Победы размером 10 на 20 метров.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урочат к празднованию 75-летия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Акция пройдет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первы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Юнармия», спортив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сотрудник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и сахалин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Организаторы снимут акцию на видео и разместят ролик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мероприятия будут приняты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меры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Возможность участия в акции «Флаги России. 9 мая» есть у все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этого 9 мая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могут разместить на своих окнах и балконах российский триколор.

(Пресс-служб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К 75-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Далёкое-близко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повесть

Ян Вон Сик

Участникам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посвящается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17)

– Пока намечается Алма-Ата. Там живут мать с отцом, сестры. Меня приглашали в аспирантуру, но хочу работать.

Музыка закончилась... Девушки заспорили, что ставить: танго или модный фокстрот, а Гена вдруг крикнул: «Лезгинку! Лезгинку!» С веселой хрипотой заиграл патефон осетинскую лезгинку. Стройная Нина плавно понеслась по комнате. Гена и другие юноши хлопали в ладони, а потом тоже включились в танец. Гена по-осетински, на носках, пошел вокруг Нины, стараясь не терять ее смеющихся глаз. Но кончился танец, и восхищенный Гена сказал: – Оказывается, вы любого горца можете переплясать, вы что, на Кавказе были?

– Нет, только собираюсь. После института месяц можно отдыхать. Хочу поехать на Кавказ. Там, говорят, красота... Слышала, есть экскурсии по Военно-грузинской дороге... А потом, хорошо бы к морю... А вы, Геннадий, не хотите на юг?

– Конечно, хочу! Мы с ребятами договорились съездить в Крым после института. У моего друга там тетя живет. Нам обещали сарай, так что проблем с жильем не будет... Там утром чайки кричат. А я люблю чаек. Я же около Владивостока у моря вырос. Нина, а может, вы с нами в Крым поедете?

– С вами? А девушки едут?

– Да. Четверо парней и две девушки. Мы все дружим.

– Ну, тогда я поехала бы...

Из кухни пришла Ден Хи и пригласила всех на чай. Возбужденная, раскрасневшаяся после танцев молодежь шумно задвигала стульями.

– Чай подают, значит, скоро финиш...

–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кончится наш вечер, а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 наша студенческая жизнь.

– Куда ты, Петя, едешь? – обратился к соседу Алексей.

– В Киргизию, в город Фрунзе, работать экономистом, а ты?

– Предлагают в Сибирь – берут на авиационный завод, в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е бюро, – отвечает Леша. – А тебя, Гена?

– В Алма-Ату, преподавать математику в университете.

– Это хорошо. А я поеду в Узбекистан работать на опытной станции селекционером по рису, – подала голос Дуся.

– Лена, а ты в какие края?

– В Сталинград.

– А я в Кызыл-Орду, учителем, – говорит Михаил.

– Ты отказался от аспирантуры?

– Да. Мне совестно мучить жену и ребенка. И так они, бедные, жили без меня уже 5 лет. Могли ли я оставить их еще на 3 года...

– В общем ясно, мы будем трудиться от Москвы до самых до окраин, – улыбнувшись, заметил Борис.

– Есть предложение: через 3 года опять собраться, – радостно объявила Нина.

Все закричали: «Обязательно соберемся!»

– Боюсь, за 3 года мы еще не успеем распрямить свои крылья – промолвила Лена. – Давайте соберемся через 5 лет.

Все опять хором поддержали. Но последовало еще одно предложение: встретиться сразу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дипломов, перед тем, как разъехаться из Москвы.

– Дипломы нам дадут не позже 20-22-го, значит, уже 23-24 июня будем свободны. И соберемся, – прощаясь сказала Дуся. – Ждите открытки с приглашением.

Но встрече уже несуждено было быть. 22 июня гитлеровские войска перешли западную границу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Добровольцы

В конце июня 1941 года у ограды старого здания МГУ на Моховой улице встретились Геннадий Хан и Борис Ан. В ворота торопливо входили молодые люди: в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м комитете комсомола шла запись добровольцев на фронт. Из репродуктора,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на фонарном столбе, раздавалась мощная мелодия «Священной войны».

– Здравствуй, Борис!

– Привет, Гена! Ну что, куда тебя записали? Когда отправка на фронт? – взволнованно спрашивал Борис.

– Еще неизвестно. Пока составляются списки добровольцев для военкомата. Надо ждать повестку. Го-

ворят, математиков отправляют в авиацию или в артиллерию, – ответил Гена.

– Как там, в комитете, много народу?

– Очень много, пришлось ждать почти три часа. У тебя получится съездить домой?

– Наверное не придется. Очень хочется повидаться с семьей, я уже почти 2 года не видел их. Малыш растёт без меня, встретимся – не узнает... Что делает война! – с горечью махнул рукой Борис.

– У нас в группе даже девушки на фронт просятся. Идут тяжелые бои, наши пока отступают. Очень нужны медсестры и санитарки.

– Да, сейчас на фронте трудно... Ну ладно, Геннадий. Поспешу и я, а то буду последним...

Гена смотрел в задумчивости на башни Кремля и тут увидел идущую со стороны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Нину.

– Здравствуй, Нина, куда вы?

– Должна встретиться с подружкой. Сказала, пойдет сегодня в комитет проситься на фронт. Обещала подождать меня у крыльца, – и добавила, – а я уже записалась у себя в институте. А вы, Геннадий?

– Я тоже, сейчас говорил с Борисом, трудно ему.

– Нас так не ждут, а по Борису жена, небось, истосковалась...

Со стороны улицы Герцена показалась Елена.

– Здравствуй! – и посетовала: – Как нарочно, месяц назад в нашем институте работала медкомиссия, некоторых освободили от физкультуры, меня тоже. А теперь в армию не записывают.

– Ты думаешь, в поликлинике дадут справку, что тебе можно воевать? С твоим-то сердцем! – воскликнула Нина.

– Но я хочу хотя бы в госпиталь: смогу же я за ранеными ухаживать, хоть бинты стирать, хоть горшки выносить.

– Также придумала, горшки таскать с высш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да еще больная. Сейчас везде дел много... Кто же будет в тылу работать? Кому готовить оружие, снаряжение, кто солдат кормить будет? – не скрывая своих эмоций, говорила Нина.

– Она права. Тебе и здесь дело найдется, – поддержал Гена.

– Лучше ты нам почаще пиши на фронт о наших родных, этим ты очень нам поможешь, – успокаивала Нина.

– Ладно, – согласилась Елена. – Вижу, моя затея бесполезна. – Я сейчас из окна трамвая наблюдала: Большой театр замаскирован, превратился в какой-то лес. Музей Ленина, Исторический музей, – словно холмы, звезды на башнях Кремля укрыли полотнищами. По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везли дирижабль. Мавзолеем завалили мешками, досками... А видели, какие лица у людей? В трамвае не слышно разговоров...

– Гитлер проклятый, мало ему, на нас полез...

– К зиме вряд ли успеют выгнать гадов... – беспokoйно промолвил Гена. – Еще кто-то из наших идет. А, это Михаил, – удивился Гена и спросил:

– Что-нибудь случилось? Ты на себя не похож...

– У нас записали всю группу, а мне отказали. Наверное, из-за того, что я кореец, а может быть, из-за брата. Он только окончил хим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и пропал без вести. Где сейчас – не знаю. Я об этом рассказывал в комитете, не имел права скрывать! Вот меня и попросили подождать, – мрачно ответил Михаил.

– Не отчаивайся, и до тебя очередь дойдет... Вот, возвращается Борис. Ну, записали тебя?

– Да, все в порядке.

– Что же мы все о войне. Девушки, давайте устроим «пир на весь мир», как договаривались! – радостно воскликнул Гена.

– Мне бы твой оптимизм, – улыбаясь, сказала Нина. – Мы же можем расстаться надолго, надо посидеть на дорожку. Если надумаете, сообщите нам: Стромынка, общежитие МГУ. Мы будем ждать, – продолжал Гена.

– Боюсь, не успеем, – мрачно заметила Лена. – У нас в институте не было даже выпускного вечера. Только танцы – 30 минут после вручения дипломов. Музыка играет, а мы стоим вдоль стен... Никто не танцует. Наш директор подходил к каждой выпускнице, приглашал потанцевать. Один он и шутил, а видно было, что и ему совсем невесело... Ни у кого не было настроения. Раньше только заиграет танго, так ноги сами летели. А тут патефон как будто плакал...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 6 мая режим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заменён на повседневный каранти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заменить с 6 мая нынешний режим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борьбу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вируса COVID-19, на повседневный карантин. Как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Чон Сэ Гюн, выступая в воскресенье на совещании по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стране, причиной смягчения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является замедление темпо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COVID-19. Он добавил, что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будут разрешены при условии соблюдения мер безопасности. Между тем, как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ак Нын Ху, повседневный карантин не означает возвращения к обычной жизн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овыми требованиями, при наличии симптомов респиратор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необходимо соблюдать домашний карантин в течение трёх-четырёх дней. Находясь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следует по-прежнему соблюдать дистанцию порядка двух метров, регулярно мыть руки и выходить из дома в защитных масках. Кроме того, будут постепенно открываться школы, музеи и друг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а жители страны будут постепенно возвращаться к нормальной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днако, в случае ухудшения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может быть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возвращении к режиму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 подчеркнул Пак Нын Ху.

В РК началась выплата единовременных чрезвычайных пособий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РК началась выплата единовременных чрезвычайных пособий гражданам страны, оказавшимся в тяжёлом положении из-за пандемии вируса COVID-19. Пособия выплачиваются наличными тем домохозяйствам, в которых каждый член семьи получает социальную, базовую пенсию или пенсию по инвалидности. К такой категории относится 2 млн 800 тыс домохозяйств или 13% все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домохозяйств. Они получат помощь без прохождения отдельной процедуры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Остальные смогут подать электронную заявку с 11 мая,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выплату в виде подарочных сертификатов, кредитных или дебетовых карт. С 18 мая заявку можно будет подать в районных центр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и мест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ях. В таком случае выплата будет произведена в виде подарочных сертификатов или банковских карт.

Президент РК устроил для детей виртуальную экскурсию по своей резиденции

Пятого мая, когда в РК отмечается День детей,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овёл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виртуальную экскурсию по своей резиденции Чхонвадэ. Она состоялась вместо традиционного приёма, который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бычно проводит в День детей на лужайке перед резиденцией.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вируса COVID-19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 участием детей отменены.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и первая леди Ким Чон Сук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специальном праздничном клипе, снятом в формате популярной видеоигры Minecraft. Кроме виртуальной экскурсии, вниманию детей предложили краткий брифинг представителя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контроля и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посвящённый ситуации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вируса COVID-19. В своём обращении к детям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ыразил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вот уже третий месяц они не могут приступить к занятиям в школах в обычном режиме. «Мы преодолеваем пандемию, благодаря вашему терпению. Мы все герои», - 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Первая леди напомнила детям, что мытьё рук и ношение масок являются важными способами борьбы с вирусом.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видеоклип будет выпущен также с английскими субтитрами.

Остров Чечжудо первым испытывает режим повседневного карантина

С приходом май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остров Чечжудо превратился в испытательную площадку для режима повседневного карантина, который вводится в РК с 6 мая.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Ассоциации туризма города Чечжу, с 29 апреля по 3 мая остров посетили 159.756 туристов. С учётом того, что праздники продлятся до 5 мая включительно, эта цифра может превысить 200 тыс. человек.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ков большинство людей носили защитные маски, но некоторые туристы всё же ходили без них или не соблюдали режим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Без защитных масок ходили также некоторые продавцы. В аэропорту и популярны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х не всегда соблюдалась дистанция между людьми в 1 метр. (РКИ)

Ким Чен Ын появился на публике

Как и следовало ожидать, спустя 20 дней после своего очередного «таинственного исчезнов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Ким Чен Ын вновь появился на публике. Надеемся, что это, наконец, избавит нас от потока «новостей» о его здоровье и бесконечных «мнений экспертов», которым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новостные ленты в последние дни были наполнены едва ли не больше, чем коронавирусом.

Как передает Йонхап со ссылкой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ЦТАК, 1 мая Ким Чен Ын посетил церемонию открытия завода фосфорных удобрений в городе Сунчхоне провинции Пхёнан-Намдо (평안남도 순천시). На опубликованных фото довольный Ким перерезает красную ленточку, сидит в президиуме и гуляет по территории завода, при этом никаких признаков смертельных болезней у него не наблюдается.

В числе сопровождавших Ким Чен Ына лиц была его сестра Ким Йоджон (김여정), официально занимающая пост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отдела агитации и пропаганды ЦК ТПК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 부부장), а также председатель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Ким Джэрён (김재룡) и зампред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НДР Пак Понджу (박봉주), до 11 апреля сего года возглавлявший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Ким Чен Ын не так уж редко «пропадает» из поля зр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 прочих СМИ. Только в этом году он трижды «исчезал» на срок больше 10 дней. И каждый раз это становилось поводом для дискуссий. В этот раз, однако, шумиха была особенно бурной, досталось всем — вплоть до высши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США, которых бомбардировали вопросами о Ким Ченыне. Буквально накануне «воскрешения» Кима человек героической судьб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перебежчик, а ныне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Чи Сонхо (지성호) заявил, что на 99 % уверен в смерти Ким Чен Ына. Все уже бросились обсуждать, кто станет на место Кима — то ли его сестра, то ли старший брат Ким Чен Чхоль (김정철). Правда, член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ямо называли сообщения о болезни или смерти Ким Чен Ына фейком и инфодемией, но это не помогало...

Трудно сказать, в чём именно тут дело.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инфодемия как-то связана с коронавиру-



сом: вероятно, сообщения о вирусе перестали приносить лайки и репосты, и для возобновления живительного потока денег от рекламы средствам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срочно нужна была какая-нибудь горячая тема, пусть и высосанная из пальц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Кимы иногда умирают. За 75 лет, пока они у власти, это случалось аж два раза. Более того, смерть Ким Чен Ына в ближайшие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лет просто неизбежна. Не исключено также, что она будет преждевременной, ведь совершенно очевидно, что Ким Чен Ын, подобно его отцу и деду, не самый здоровый человек на планете. Надо, однако, помнить, что разного рода болячки не помешали предыдущим руководителям Севера дожить до старости: Ким Ир Сен умер в 82 года, Ким Чен Ир — в 70 лет. Ким Чен Ыну, которому по разным данным от 36 до 38 лет, до прекл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пока далеко.

Наконец, у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нет и не может быть абсолютно никак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здоровье Кима. Можно практически гарантировать, что, как это было и раньше, смер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огда она всё-таки случится, застанет и их, и всех нас врасплох, предсказать её никто не сможет. Поэтому — совершенно независимо от ваш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взглядов и отношения к Северной Корее — к любым сообщениям на тему об очередных болезнях и смертях Кима, публикуемым кем бы то ни было, кроме агентства ЦТАК, следует относиться крайне скептически и не тратить на них лишний раз своё драгоценное время.

Евгений Штефан (2 мая 2020 г.)
Источник: журнал КИМ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звали дату возобновления занятий в школах

Южная Корея продолжает возвращаться к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С 6 мая в стране отменяются или ослабляются многие ограничения, которые касались работы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проведения круп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а с 13 мая в школах поэтапно возобновят учебу в обычном формате.

Как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он Се Гюн, "со среды 6 мая будет разрешено проведение различных круп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собраний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организаторы будут соблюдать меры по дезинфекции".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так как власти смогли выполнить задачу удержать число новых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на уровне менее 50 человек в сутки. В Корею это условие выполняется уже 25 дней, при этом последние 20 дней число заболевших составляет менее двух десятков за день.

В целом с 6 мая будут отменены или ослаблены многие ограничения, которые были наложены на работу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увеселительных, спортивных заведений.

Кроме того, смогут вздохнуть с облегчением родители. Власти Кореи также назвали дату, когда возобновится работа школ и детских садов в стране. Это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постепенн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 13 мая в обычном формате начнутся занятия

у школьников выпускных классов (12-й год обучения),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поступать в вузы. Затем через неделю, то есть с 20 мая, к ним присоединятся учащиеся 11, 9, 2, 1 классов и детские сады, с 27 мая - возобновят учебу 10,8,3 и 4-е классы. Позже всех - с 1 июня - уроки в обычном формате стартуют у остальных - 5,6 и 7-х классов.

Напомним, что в Южной Корее учебный год начинается 2 марта, но в этот раз из-за эпи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COVID-19 начало занятий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ереносили. Учебу в итоге возобновили, но пока только в формате телеконференций.

Одновременн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одолжает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успехи в борьбе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полночь 4 мая за сутки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лишь восемь новых зараженных COVID-19, при этом 34 человека выздоровели и двое умерли. Общее число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теперь составляет 10 801, выздоровевших - 9217 и умерших - 252 человека. Численность людей, у которых сейчас в организме есть коронавирус, снизилась за сутки на 28 и составляет 1332 человека. Доля выздоровевших - 85,3 процента, летальность - 2,33 процент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522 руб. 9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первый в стране регион, который ввел проверку пассажиров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в аэропортах отправления

Всех граждан, летящих на остров, проверяют на наличие опасной инфекции в 4 аэропортах России.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ли экспресс-тестирование в воздушных гаванях Москвы, Новосибирска, Владивостока и Хабаровска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авиакомпаний «Аэрофлот», S7 Airlines, «Аврора» и «Якутия». Вскоре к ним добавится аэропорт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ого.

Новая мера профилактики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позволяет предотвра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опас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защитить пассажиров и экипаж.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4 мая на совещании,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начали вводить предполетный контроль пассажиров, которые летят на Сахалин, с 30 апреля. И эта уникальная практика, которая не имеет аналогов в стране, уже доказала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Только сегодня медики выявили 12 человек с подозрением на COVID. Часть из них передана медслужбам в аэропорту отправления, остальные отправлены домой в специальных защитных костюмах. Таким образом, мы защищаем пассажиров, экипаж и ч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 предотвращаем завоз опас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на остров,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ля предполетной проверки пассажир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тправила собствен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бригады в аэропорты отправления. Их обеспечили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 пробирками, центрифугами для крови, средствам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В московском аэропорту «Шереметьев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еревозчика – авиакомпании «Аэрофлот» – тестирование пассажиров организовали в зоне досмотра после регистрации. Вскоре здесь заработает второй пункт, который будет охватывать трансферные потоки.

– Совместно с властями региона мы обеспечили работу медик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зоне вылета в аэропортах Толмачево Новосибирска и Кневицы Владивостока. В ближайших планах – открыть пост и в трансферной зоне, – сообщил директор филиала S7 Airlines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лексей Бурковский.

«Аврора» помогает в организации тестирования пассажиров в аэропортах Владивостока и Хабаровска. В планах авиакомпании – запуск медицинского поста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е-Камчатско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илили масочный режим

С 5 мая островитяне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должны использовать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защиты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В их числе – объекты розничной и оптовой торговли,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ые оказывают услуги и выполняют работы,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аптеки и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указ подпис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окумент опубликован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ссылке: [http://spd.admsakhalin.ru/public/#javascript:anchor\(this\);](http://spd.admsakhalin.ru/public/#javascript:anchor(this);)

– Хотелось сказать спасибо островным медикам,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нам удается сдержива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а. Отдельных слов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служивают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облюдающие меры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я, – отметил глава области. –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каждый из нас должен думать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своих родных и земляков. Одна из эффективных мер защиты от опасной инфекции –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едицинских масок.

5 мая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еще об одном случае зараж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COVID-19 обнаружили у женщины, прибывшей в регион из Хабаровска 1 мая. В аэропорту она прошла экспресс-тест, который показал положи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А сегодня пришло лабораторное подтверждение анализа. Сейчас женщина лечится в инфекционном госпитале.

Всего с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зафиксирован 31 случай зараж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ом, 19 человек выздоровело, 12 находятся на лечении.

Напомн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первым регионом в стране, который ввел проверку пассажиров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в аэропортах отправления.

Новая мера профилактики позволяет предотвра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а, защитить пассажиров и экипаж.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и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георгиевские ленточки

Символы праздника Победы отправлены во все район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До 9 мая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едать около 75 тысяч ленточек.

Их уже начали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е и одном из крупных магазинов. Всего было передано около 2 тысяч ленточек. В акции участвовали волонте-

р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Юнармия»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Из-за ситуации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передача ленточек организована бесконтактным способом, чтобы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контакт с людьми и обезопасить их. Символы Дня Победы направляем в те места, которые чаще всего посещают жители: в магазины, аптеки и больницы. Основной период раздачи будет с 6 по 8 мая, – рассказал и.о. руководителя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Смекалов. – Также ранее с соблюдением всех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ей георгиевские ленты передали ветеранам и пенсионерам, вместе с продуктовыми наборами.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георгиевские ленточки развезут по всем крупным торговым точкам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Кроме этого, в планах организаторов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символы Победы среди трудовых коллективов. Уже запланирован выезд в аэропор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различные ведомства.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продолжают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местным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сетил предприятие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томатов в селе Колхозное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Невельский район.

– На прямой линии мне задают вопросы про цены на томаты. Сахалинцы сообщают, что килограмм стоит от 450 рублей. Многих это не устраивает. К счастью, у покупателей есть альтернатива. В регионе достаточно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ют продукцию по вполне доступной цене, к тому же на островах много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ов, торгующих с минимальной наценкой на товары,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ОО «Невельский АгроСнаб», где побывал губернатор, производит более 1000 тонн овощей закрытого грунта в год. Ассортимент томатов насчитывает 8 сортов.

– Вся наша продукция идет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области. Отправляем партии во все районы Сахалина и даже на южные Курилы. Отпускная цена за килограмм розового томата – 220 рублей, красные – по 160 рублей. Продаем в своих магазинах и всем желающи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которые устанавливают свои наценки от 15 до 30 процентов,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предприятия Денис Кан.

В перспективе здесь планируют выращивать еще и клубнику.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региона,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объем островной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и увеличивался. Кроме того,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готовы поощрять открытие предприятиями фирменных торговых точек и расширение сети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ов.

– Сегодня около 80 процентов томатов, потребляемых сахалинцами и курильчанами, производится в регионе. У нас в области 125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ов. Есть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С начала года открылись 5 новых, в том числе в Углегорске и Ногликах, –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на Павленко.

Еще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ов в отрасли остается развитие ярмарочной торговли. Реализацию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и в таком формате продолжают, как только позволит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ая обстановка.

Свыше 20 льготных займов выдал Сахалинский Фонд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на поддержку островного бизнеса

Структура предлагает в качестве антикризисных мер помощи малым и средни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льготные займы на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цели и развитие производства, беспроцентные займы на зарплату сотрудникам, а также отсрочку по уже действующим долгам обязательствам.

За апрель текущего года отдел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СФРП выдал 20 займов под 2 и 3 процента годовых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пецифики предприятия) на общую сумму около 6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Максимальная величина займа, предоставленного по льготной ставке, составила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минимальная – 1,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 Количество обращений в фонд за заем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значительно выросло в апре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 рассказывает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СФРП Анна Пантелеймонова. – Сейчас в работе находятся еще 50 заявок на совокупную сумму, превышающую 18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фонд предоставил 18 отсрочек на полгода по действующим микрозаймам малым и средним предприятиям в связи с ухудшением финансового положения заемщиков.

Микрозаймом под ноль процентов годовых на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расходов по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пока воспользовался один клиент. В работе находится еще две заявки – на выплаты в мае.

Отметим, на беспроцентные займы и отсрочки по действующим долговым обязательствам могут претендовать только компании, ведущие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от-

раслях, наиболее пострадавших в условиях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VID-19. Это общественное питание, оказание бытовых услуг, организация досуга, туризм и другие. Напомним, этот список недавно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ли. Полный перечень можно найти по [ссылке](#).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и направить документы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можно, связавшись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отдела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по телефонному номеру горячей линии СФРП: 8-800-222-0123 (добавочный 3). Ознакомиться со всеми условиями – на [сайте](#) фонда.

Благодаря нацпроекту «Культура» в Углезаводске отремонтируют Дом культуры

До конца лета в селе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завершат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На эти цели выделили более 3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рамках инициативной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программы «Культурная среда» по нацпроекту «Культура».

Согласно техзаданию, строителям предстоит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фасад, стены и крыльцо Дома культуры. Вдоль пандуса и на главном входе установят поручни, по периметру крыши обустроят водоотлив, а вокруг здания сделают новую отмостку.

– Для жителей Углезаводска Дом культуры имеет огромное значение. Это место для занятий творчеством и проведения праздников. И конечно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у этого здания и вид был праздничный, располагающий к творчеству,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управления культуры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Алёна Хавилова.

Сейчас в Доме культуры действует одиннадцать кружков и секций,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в том числе кукольный театр и ансамбль народной песни «Сударушка», радующий своим творчеством не только односельчан, но и жителей других городов Сахалина и даже Японии.

– Для жителей Углезаводска Дом культуры – это настоящий центр притяжения. Вся жизнь здесь проходит. Для нас такая радость, что наконец нашлись средства привести его в порядок! С нов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у нас начнется новая жизнь, – поделилась заведующая культурным учреждением Индия Малык.

Напомним,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иведения в порядок сель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говорил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по культуре и искусству в конце 2018 года:

«Национ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должна получить сильн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измерение, стимулировать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и разнообразия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в малых городах и посёлках страны».

Всего по программе «Культурная среда»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и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526 сельских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ых объектов в стране.

Более 250 компьютеров передали сахалинским школьникам для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учения

Технику предоставляют нуждающимся островитянам в рамках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акции «Помоги учиться дома».

– Мы очень признательны и благодарны всем меценатам и обществен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которые несмотря на трудное время откликнулись и оказали помощь в приобретении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компьютерной техники, – подчеркнула глава островной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 Наша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в максимально сжатые сроки обеспечить каждому ученику доступ к дистанционному обучению. Это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период самоизоляции прошел с наименьшими потерями дл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Акция стартовала в середине апреля. Ее цель – в максимально сжатые сроки обеспечить компьютерами, планшетами, ноутбуками детей, у которых нет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ноценно осваивать учебный материал дистанционно.

Списки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составлены школами и переданы в Центр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образования. Эта организация осуществляет сбор техники от благотворителей и неравнодушных граждан. Узнать, вошел ли ребенок в список проекта, можн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своих школах.

Акция является социальной, к ее реализации подключаются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фонды и социально ответств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а регион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её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фонд «Родные Острова»,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Наш Сахалин»,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 Металл», «Крильон-Сервис», «Лиго-Дизайн», «Тезона», «Лоддес», магазин «Орбита».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проекта может каждый, кто готов поделиться компьютерной техникой с нуждающимися семьями.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позвонить на телефон горячей линии: 8-800-201-22-80.

Напомним, всероссийскую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ую акцию «Помоги учиться дома» инициировало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вместе с Минпр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и и партией «Единая Росс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기획특집

부산 : 시와 열정의 항구
4. 피난 수도의 기억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가 된 부산은 휴전협정으로 전쟁이 끝나고 1953년 8월 15일 정부가 서울로 돌아갈 때까지 실질적인 수도의 역할을 했다. 임시 수도의 정부 청사로 사용했던 당시 경상남도청 인근 동네에는 피난민들이 대거 몰려들어 기약할 수 없는 타향살이를 시작했다. 그 애환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게 한다.



부산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감천동은 1950년대 중반 태극도(太極道) 교도들이 산 중턱으로 집단 이주하며 형성된 마을이다. 산자락을 따라 계단식으로 늘어선 주택들과 미로 같은 골목길들이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 낸다.
© 부산광역시(촬영 정을호)

부산이 수도 서울에 이어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된 것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전쟁은 여러 측면에서 부산을 급격히 팽창시킨 결정적 계기였다. 전쟁 직전인 1949년 약 47만 명이던 이 도시의 인구는 이곳이 임시 수도가 되고 피난민이 유입되면서 가파르게 늘기 시작했다. 휴전 2년 후인 1955년에는 대부분의 피난민이 정착하면서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이로써 부산은 대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피난민들은 임시 거처에 머물며 생계를 꾸려 나가야 했다. 부산역과 부산항이 인접해 있는 중앙동 40계단 일대는 그런 애환을 대표하는 장소이다. 이곳에는 아기에 젖을 먹이는 젊은 엄마와 뽕튀기 장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지게꾼 등 피난민들의 모습이 조형물로 설치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 이곳은 노동과 휴식의 경계 지역이었다. 계단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낱팍팔이, 껌 장사, 부두 하역 등을 하던 노동의 공간이었으며, 위쪽에는 임시 거처로 지어 놓은 천막집이나 판잣집들이 즐비했다. 피난민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잠시 틈이 나면 이 계단에 앉아 발을 뻗고 눈을 붙이거나 가족을 떠올리며 눈물 짓곤 했다.

한국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또 다른 공간이 바로 영도 다리이다. 피난민들에게 가난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알 수 없는 가족의 행방이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이 다리 난간에 헤어진 가족을 찾는 벽보를 붙이기 시작했고, 눈물을 흘리며 기약 없는 가족 상봉을 기다렸다. 부산 남쪽에 자리한 섬 영도는 1934년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내륙과 이어지게 되었다. 영도 다리는 국내 최초의 연륙교이자 유일한 도개교로 부산을 상징하는 구조물이었기에 피난민들은 이곳에서 가족과 만날 날을 꿈꾸었다.

전시 임시 수도

이와 달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은 부산이 임시 수도였음을 증명하는 곳이다. 이 건물은 일제가 진주에 있던 경상도청을 부산으로 옮기면서 1925년 준공되었다. 부산이 항만의 관문이고 교통의 중심지인 점을 감안해 식민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청을 옮긴 것이다. 한국전쟁 시기에는 임시 수도의 정부 청사로 사용됐으며, 휴전 뒤에는 다시 경상도청으로 복귀했다가 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부산지방방위원 등으로 활용되는 등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사회적 변화 속에서 부침이 많았던 건물이다. 그러한 연유로 이 건물은 2002년 등록문화재(근대 문화유산 중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가 커서 정부가 지정, 관리하는 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되었다. 2009년부터는 동아대학교의 박물관으로 사용되면서 역사 교육의 장소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부산이 임시 수도 역할을 했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최근에 조성된 거리도 있다.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에서 임시 수도 기념관을 잇는 '대한민국 임시수도 기념 거리'에는 그 시절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조형물과 당시 운행되었던 전차를 볼 수 있다.

임시 수도 기념관은 일제 강점기 경남도지사 사택으로 지어졌다가 임시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한국전쟁 시절 임시 수도로서 국난을 극복해 낸 부산의 위상과 역사성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실물 크기의 이승만 대통령 밀랍 인형과 집무실을 그대로 재현해 전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전쟁 당시 사용하던 물건들과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판잣집, 피난 학교, 국제 시장의 좌판 등을 모형으로 전시하고 있다.

산복도로

부산에는 산 중턱을 지나는 산복도로가 유난히 많다. 총연장 길이가 65km나 되기 때문에 부산을 '산복도로의 도시'라고 부를 정도다. 당장 거처가 필요했던 피난민들이 산에 천막집과 판잣집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산복도로가 많아진 이유다. 실핏줄 같은 길을 따라 딱딱딱 작은 집들이 들어서고, 집과 집 사이로 다시 미로 같은 골목이 뻗뻗이 얽혀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고달픈 삶을 이어갔다. 신산했던 정경이 담긴 장소가 이제는 세월이 흘러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곳이 감천문화마을이다.

부산대병원에서 감천고개로 오르다 보면 오른쪽으로 계단식 마을 풍경이 펼쳐진다. 전쟁 때 피난 온 신흥 종교 태극도 신도들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만든 부락이 태극도 마을인데, 감천문화마을의 원형이다. 부산 사람들은 이곳을 '기차 마을'이라고도 불렀다. 밤이 되면 루핑집 창문으로 불빛이 비치는데, 멀리서 보면 수평으로 길게 이어진 집들이 달리는 밤기차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치 레고를 쌓은 듯 집들이 촘촘하게 들어차 있고, 지붕이 색색으로 알록달록해 이색적 풍경을 연출한다.

마을 곳곳마다 어느 방향으로 가도 골목과 골목이 만나고, 가파른 경사의 계단과 계단이 만난다. 골목은 가로로 집들을 이어주고, 계단은 세로로 골목들을 이어준다. 현재는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마을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곳곳에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여 문화예술 마을로 탈바꿈했다. 「르몽드」나 CNN 등 해외 언론이 적극 추천한 장소이기도 하다.



중앙동 40계단은 판자촌에서 임시로 거주하던 피난민들이 매일 물동이를 지고 오르내렸던 곳이다. 당시 이곳에 살던 피난민들의 모습을 담은 여러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부산에는 산 중턱을 지나는 산복도로가 유난히 많다.

당장 거처가 필요했던 피난민들이 산에 천막집과 판잣집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산복도로가 많아진 이유다. 실핏줄 같은 길을 따라 딱딱딱 작은 집들이 들어서고, 집과 집 사이로 다시 미로 같은 골목이 뻗뻗이 얽혀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고달픈 삶을 이어갔다.

도매기 시장

낮선 도시에서 하루하루 막막하고 속절없는 피난살이를 견뎌야 했던 피난민들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억척스레 가족을 부양하며 삶을 일굴 수 있었던 것은 시장 덕분이었다. 그들에게 소중한 끼니를 제공했던 부산의 시장들은 각자의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아로새겨진 장소들이다. 특히 국제시장과 부평깡통시장 일대에서는 해방 직후 일제 전시 물품과 한국전쟁 당시 미군부대에서 밀반출된 생활 물자를 난전에서 팔았기에 '도매기 시장'이라 불리기도 했다.

국제시장은 여러 나라들에서 원조 받은 구제 물품으로 한때 국내 패션 문화 1번지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없는 물품이 없다 하여 가히 '국제적'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얻었다. 국내 최초의 공설 시장인 부평깡통시장은 전후 군수 물자가 암거래되던 곳이다. 전쟁 당시 부산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들이 먹던 깡통 음식들이 음성적으로 반출, 난전에서 거래되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미군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양키 장사꾼'이라 했는데, 그들은 미군과 함께 생활하는 여성들로부터 술, 담배, 식료품 등을 넘겨 받아 쓸쓸한 이익을 남기고 팔았다.

부평깡통시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의 발상지로도 유명했다. 부산어묵이 처음으로 태어난 곳이면서 피난 시절에는 부산돼지국밥이 만들어졌다. 또한 사람들은 미군부대 군인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걷어서 죽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일명 '꿀꿀이죽', 'UN탕'이라고 불리던 이 음식은 부대찌개의 원조라 할 수도 있겠는데, 소시지와 햄 등이 들어 있어 피난민들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했다.



UN기념공원 묘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UN군들의 유해를 매장하기 위해 UN군 사령부가 조성한 곳으로 1951년 4월 완공되었다. 21개 참전국들의 국기와 UN기가 연중 게양되고 국내외 많은 방문객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헌책방 골목

150여 미터에 걸친 좁은 골목길에 약 40개의 서점이 빼곡히 들어차 있던 보수동 책방 골목은 당시 전국 최대 규모였다. 전쟁 중 구덕산 일대와 보수동 뒷산, 영도 등에는 대학생들이 천막과 판자로 만들어진 임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전시연합대학'이라 불리었던 이 학교는 문교 당국이 서울 시내에 있었던 여러 대학을 통합시킨 것이었다. 이때문에 학생들의 통학로였던 보수동 골목은 늘 북적였고, 자연스럽게 책방 골목이 형성되었다.

전쟁으로 더욱 열악해진 출판 사정으로 교과서는 물론이고, 일반 도서도 제대로 구입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때문에 책을 팔려는 사람들과 사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헌책 노점이 성황을 이루었고, 이 노점들이 하나둘 자리 잡게 된 것이 지금 보수동 책방 골목의 시초다. 당시 지식인들은 자신이 아끼는 진귀한 책을 눈물을 머금고 팔아 끼니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렇게 모인 책들로 인해 이곳은 부산의 지식 창고이자 문화 골목의 상징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UN기념공원은 전쟁의 기억을 직접적으로 되살려주는 장소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산화한 UN군들이 영면해 있는 곳으로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11개국 총 2,297명의 전사자들이 잠들어 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나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공원처럼 전쟁의 상흔을 딛고 오늘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자유의 가치를 알리는 소중한 공간이다. UN기념공원 주위에는 지구촌의 화합을 염원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식을 기원하는 UN평화공원과 UN조각공원, UN평화기념관도 있다.

최원준(Choi Weon-jun 崔元儔) 시인,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안홍범 사진

출처: <https://koreana.or.kr/>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쿠릴 보호구역의 디지털 지도는 сахалин의 많은 명소들을 소개하고 모든 곳, 해안, 산봉우리와 산길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 여행의 필수 도우미가 되고 있다. 여행자들을 위해 가까운 숙박소, 항구, 상점, 약국, 병원, 우체국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 중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고 지인과 공유도 할 수 있다.

또한 보호구역 방문의 제한과 규정은 덤으로 제공되며 고도가 매겨진 지형의 능선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산 정상으로 등반하는 여행자에게 아주 중요하다.

У Курильского заповедника появилось приложение с современной картой

У Курильского заповедника, который располагается на острове Кунашир, появилась удобная цифровая карта. Загрузить ее можно с телефона с помощью бесплат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СагуМар. Оно поможет туристу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на местности,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стоянках, а в глуши – использовать основные функции в режиме оффлайн.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Цифровая карта заповедника знакомит с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которых на острове немало. Можно прочитать о всех мысах и заливах, горных вершинах и перевалах. Интерактивная карта будет главным помощником путешественнику, так как там же можно узнать, где находятся ближайшие стоянки для туристов, порты, магазины, аптеки, больницы и почтовые отделения.

ния. Также туда можно загружать свои фотографии из путешествий и делиться со знакомыми.

Бонусом даны границы и правила посещения заповедника;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горизонталь рельефа с отметками высоты, что очень важно для любителей преодолевать вершины.

코로나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행복감을 느껴

전 러시아 여론조사 센터는 러시아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81%는 어떻게든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34%가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확실히 그렇다'고 답했다.

2019년 11월 비슷한 조사와 비교하면 행복지수는 3점이 올라 현재는 67점이다. 10년 전 러시아 여론조사 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행복 지수는 48점에 불과했고, 30년 전에는 겨우 17점 이었다.

이제 응답자 중 3분의 1(33%)은 자신들이 불행한 사람보다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46%는 그들이 주변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동등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14%는 그들 주변에 대체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이 행복을 느끼는 요인으로 '가족이 있다'가 29%, '아이들이 있다'가 14%로 드러났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중 ¼인 25%가 그들 자신의 좋은 컨디션과 친지들의 건강으로 인해 행복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행복을 주는 요인으로 좋은 직장이 11%, 양호한 경제적 상황이 9%로 나타났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11%, 국가적 열악한 상황이 8%, 안정 부족이 7%, 실업 및 건강 악화가 각각 4% 등으로 드러났다.

Несмотря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большинство россиян чувствуют себя счастливыми

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изуч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спросил россиян о том, насколько они счастливы. Оказалось, 81 процент опрошенных чувствуют себя счастливыми в той или иной мере, а 34 процента в ответ на вопрос «Вы счастливы или нет?» сказали «Определенно д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опросом,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ли в ноябре 2019 года, индекс счастья вырос на 3 пункта. Сейчас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67 пунктов. Для сравнения: десять лет назад индекс счастья в стране, по данным ВЦИОМ, был всего 48 пунктов, а 30 лет назад едва дотянул до 17.

Сейчас треть опрошиваемых респондентов – 33 процента – считают, что у них в окружении больше счастливых людей, чем несчастных. 46 процентов убеждены, что их окружают поровну как счастливые, так и несчастные люди. И 14 процентов уверены, что рядом с ними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несчастные люди.

Причины, по которым россияне чувствуют себя счастливыми: есть семья – 29%, есть дети – 14%. Каждого четвертого в счастливом состоянии поддерживает собственное хорошее самочувствие и здоровье близких – 25%. Приносят счастье и хорошая работа (11%), и хорошее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9%).

Поводы для несчастья: материальные трудности (11%), плохое положение дел в стране (8%), отсутствие стабильности (7%), а также безработица и плохое состояние здоровья (по 4%).

(сахалин주, 러시아 및 외국 언론기관 자료에서)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Платформа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йт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